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그리스도론, 세션 17

체계학, 그리스도의 인간성 증명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17번째 세션, 체계학, 그리스도의 인간성 증명입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운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세상의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임을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봉사에 기여하도록 돕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간성과 성육신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성육신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이 자신에게 순수하고 죄 없는 인간 본성을 취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확실히 그분의 인간성을 증명합니다.

그분의 인간성에 대한 다른 증거들도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적인 약점과 필요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적인 감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그의 아버지와 인간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는 또한 그와 신성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완전해졌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는 죄가 없었고, 저는 세 군데를 꼽습니다. 특히 그의 인간성이 너무나 극명해서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 다음 종속주의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리고 무슨 뜻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가 지상에 계실 때 죄를 지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는 문제입니다. 모두가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데 동의합니다. 모두가 그가 승천하신 상태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그분이 신성했기 때문에 불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흠잡을 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간성은 성육신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인간성을 강조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으므로, 바로 그것이 성육신의 요점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분의 인간성에 대한 이러한 다른 증거에 접근하고 이를 다룹니다.

두 번째, 첫 번째 화신, 두 번째, 그는 인간적인 약점과 필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곤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피하는 일반적인 길을 따를 수 있었지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요한복음 4 :6). 그래서 예수께서는 여행으로 지치셨지만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섯 시쯤이었습니다.

칼빈이 그의 공관복음서의 조화에서 말했듯이, 예수는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인으로서 참으로 피곤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피곤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지상의 신은 피곤할 수 있고, 그는 피곤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에게는 신성과의 연합 외에는 다른 인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 그의 인간적 본성과 특별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언급됩니다. 그 사람은 피곤했고, 그것은 그리스도 전체에 대한 진술이며, 특히 그의 인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목마르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이루기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그분은 진정제가 될 음료를 거부하셨지만, 속죄의 완전한 고통을 경험하고 싶어하셨습니다. 그분은 속죄의 완전한 열정이나 고통을 경험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신맛 나는 포도주를 취하여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나는 목마르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목마르셨습니다. 그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처음 읽었을 때 놀랐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에 대한 연구는 그분이 단순한 힘이 아니라 인격체라는 것, 그분이 인간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신성한 인격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사람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이 창조와 섭리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구속에서 역할을 합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지 않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사람들에게 적용합니다.

성령의 사역 중 하나는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삶의 여러 지점에서, 여기를 포함하여,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는 예수님을 광야로 밀어내어 악마의 유혹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유혹은 우리의 유혹과 어떻게릅니까? 글쎄요, 첫째, 우리 대부분은 결코 사탄에게 충분히

도전할 수 없어서 그분으로부터 일대일 유혹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혹은 더 컸지만 예수님의 유혹은 아담의 유혹과 비슷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담과 같은 진정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며, 그것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저는 이해하지만, 두 번째 사람으로서 그는 죄의 성향도, 죄의 본성도 없는 아담처럼 유혹을 받았고, 타락하기 전에 내면의 죄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혹은 아담의 유혹과 같았고 우리의 유혹과는 달랐습니다.

오, 그의 유혹은 진짜가 아니었어. 그는 이런 죄스러운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 아담의 유혹은 진짜였을까? 물론, 진짜였고, 예수도 진짜였다. 사실, 나는 학자, 아마도 이름이 나올지도 모르는 마르게리트 슈스터가 쓴 에세이를 읽었는데, 풀러 신학교의 신학자를 위한 *festschrift*인 *Perspectives on Christology*라는 책에 실려 있었는데, 그의 이름도 나올지도 모른다.

어쨌든 풀은 풀러의 신학자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제외한 우리 모두가 유혹에 한 번이라도 굴복하는 것에서 오는 안도감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유혹의 칼날 위에 계셨습니다.

그는 그 해방, 안도감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앉아 있으라고 권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매우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혹에 굴복함으로써 그 끔찍한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녀나 저는 유혹에 굴복하라고 권하지 않지만,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유혹은 우리의 유혹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히브리서 4:15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14절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그의 인간 이름입니다.

마리아(루가복음 1장)와 요셉(마태복음 1장)은 모두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세요. 인간. 결코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신의 아기. 신-인간. 그러니 그에게 이름을 붙여라, 그에게, 그리스도의 인간적 이름을 붙여라.

예수의 인간성. 예수는 인간이며, 신의 아들이며, 히브리서 2절부터 신적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아들 예수,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잡읍시다.

그는 한 인격 안에 있는 사람이자 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동정할 수 없는 대제사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서 우리의 약점을 동정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있지만,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면에서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예수님께 크랙 코카인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포르노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이지만, 1세기에는 중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세기에는 여성들이 아름답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순수한 인간 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경험한 모든 종류의 유혹에서 그는 항상 죄에 대해 '아니오' 라고 했고 아버지께는 '예'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를 축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책임 있는 신으로서, 인간은 항상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유혹을 받았지만 죄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은 첫 번째 아담과 달리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약점과 필요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는 피곤하고 목마르고 유혹을 받았지만,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이미 보았듯이 위험을 피했습니다

. 신성한 주권, 인간의 책임, 긴장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의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니, 복잡해요.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일 때, 그는 바로 위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는데, 그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시에, 오, 그러므로 그는 무관심하고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는 책임이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요한복음 7:1, 그 후에 예수께서 북쪽 갈릴리에서 다니셨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남쪽 유대에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주권자이신 예수님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여 항상 가지고 있던 의지의 자유를 행사했습니다.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이신 우리 주님은 물론, 그의 성육신에서 삼위일체는 삼위일체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신비롭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셨고, 자신을 사람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완전히 성육신하여, 자신을 죄 없는 인간 본성을 취하셨고, 그는 진정으로 인간이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약점과 필요성을 가지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화가 나셨습니다(마가복음 3:5). 예수님도 화가 나셨습니까? 저는 화가 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가 나야 할 때 화가 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마른 손을 가진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회당 지도자들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행위입니다. 아니,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화가 났습니다. 그는 그 남자를 고치기 전에 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마가복음 3:5. 그는 분노로 그들을 둘러보셨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에 슬퍼하셨습니다.

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온전해지려고 합니다. 몸의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작은 기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뻗으세요.

그는 그것을 뻗었고, 그의 손은 회복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즉시 헤롯당원들과 회의를 열어 그를 대적하여 그의 사역 초기에 그를 어떻게 멸할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

아, 그런 마음의 강박함은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고, 그분을 정당하고 정당하게 화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을 치워라, 비둘기들아.

이제, 희생을 위해 동물을 제공하는 것이 잘못이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그들이 성전 뜰의 이방인 뜰에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동전 교환에 엄청난 돈을 청구하여 당신이 사용할 특별한 동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요. 이런 것들을 없애세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의 집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는 화가 나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신인입니다.

그는 슬퍼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은 가슴 아프다. 마태복음 26장.

오, 세상에. 마태복음 26:36. 그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겿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며 근심하시고 괴로워하시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영혼이 매우 근심하여 죽을 지경이로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물론, 그들은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은 원하지만 육신은 약합니다. 그들은 계속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혼자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일부는 이것을 보고 듣고 있었고, 매우 슬펐을 것입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죽고 싶을 만큼 슬퍼?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랬다. 십자가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면서 정원에서 끔찍한 슬픔이 그를 압도했다.

육체적 공포? 오, 맞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심한 것은, 신으로부터의 영적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슬픔을 보여 주십니다.

제가 그를 단순한 사람으로 축소하고 있습니까? 절대요! 그는 하늘에서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계속하시는 하나님 아들이지만 진정으로 우리 중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들의 형제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례식에서 전문적인 울부짖는 사람을 고용했고, 그들은 여기서 울부짖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능숙했을 겁니다. Martha와 Mary 둘 다 제게는 인상 깊습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요.

만약 스승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형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예수에게 독립적으로 입에서 꺼낸 첫 번째 말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32절에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그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당신이 여기 계셨다면, 제 형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녀가 우는 것을 보시고,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그는 그의 영으로 깊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러니, 여기 또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괴로워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와서 보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요한복음 11장 36절 5절, 예수께서 울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구절은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지만 꽤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했습니다. 그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세요. 그리고 평소처럼 그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께서 이 사람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을까요? 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의 선구자로서, 그분은 나사로를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나인의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그리고 그의 친구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마지막 날의 부활의 차이는 어휘가 아닙니다. 같은 종류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그들은 부활했고 종말론적으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그 세 사람은 여전히 중동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강의에서 이 언급의 요점은 예수께서 친구에 대한 인간적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장례식의 슬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혹은 그 결과를 알고 계셨습니다.

고통, 마가복음 3:5. 예수님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그의 괴로움과 분노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들의 회당에서 마른 손을 가진 이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을 알고 있는 가능성에 뛰어들지 않을 때 그는 마음속으로 괴로워합니다. 예수는 인간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태어났다. 그는 자랐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18과 그 다음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런 방식으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 구절들을 다시 읽지 않을 것이지만, 그것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1-4도 같은 일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이것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나요? 네. 그게 그가 하나님이 되는 시작인가요? 물론 아닙니다. 그는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삼위일체의 신비에 따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계속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성육신 이후에도 그는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더 이상 삼위일체를 갖지 못합니다. 오, 나는 삼위일체, 아버지와 영을 하늘에 두고, 아들은 마리아의 태중에 한정되고 지상의 몸으로 제한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삼위일체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단언한 거예요. 웃기고, 끔찍한 태그예요. 칼빈주의적이에요. 루터교의 모욕이에요. 개혁자들은 루터교도들처럼 모욕을 퍼부었고, 양쪽에 진흙을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나쁘게 말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저는 데이비드 윌리스가 말했던 것을 보여드렸는데, 당신은 그것을 extra Catholicum 또는 extra Patristicum 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타나시우스의 교부들의 가르침으로, 영원한 말씀이 사람이 되었지만, 물론, 영원한 말씀으로 계속 존재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가 속성을 포기한다면, 예를 들어, 편재성, 전지성, 전능성, 그는 신이 아니며, 삼위일체는 그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신비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사람이 완전히 성육신하기 때문입니다. 구유 속의 아기는 신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이 사람 예수 안에 육체적 형태로 거합니다(골로새서 2:9). 하지만 확실히 삼위일체는 삼위일체로 남습니다.

히브리서 1장, 아들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십니다. 골로새서 1장,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그는 자신의 몸에서 섭리의 일을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육신 밖의 말씀인 로고스 아사르코스로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로고스 아사르코스 이고 그는 로고스 아사르코스 입니다 . 그는 영원히 그 역할을 계속하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입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 안에서 영원히 육신을 입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해합니까? 아니요, 저는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은 더더욱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소위 칼빈주의 외적인 일은 두 가지 사이의 연결이므로, 당신이 원한다면 그것은 이중의 신비입니다. 삼위일체가 1/3로 줄어들지 않고 완전히 그대로 유지되는 방법과 인간 예수가 결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되는 방법.

예수가 태어났다. 마리아는 테오토코스다 . 이것은 그녀에게 특별한 경의를 표하거나 기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의미는 그녀가 신을 낳는 자라는 것이다. 그녀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신이다. 그것은 그녀의 공로가 아니다.

성령께서 처녀인 그녀에게 잉태하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잉태한 것은 우리 주님의 인성이었습니다.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인간일 뿐, 결코 인간일 뿐이 아닙니다. 그는 성장했습니다. 오, 저는 누가복음 2:52를 좋아합니다. 세상에, 이 구절은 수년간 제 학생들의 마음을 어떤 구절보다 더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불안해하고, 겁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어린 예수가 부모님을 놀라게 한 후, 그것이 제 아버지의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랍비들을 가르치는 데 뒤에 남았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내려갔고, 누가복음 2:51, 나사렛에 와서 그들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그녀의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저는 몇몇 예민한 남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몇몇 목사, 장로, 그리고 진정한 마음을 가진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도 사람에게 대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그녀의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여성이자 어머니로서 은사를 받은 아름다운 표현으로, 세상에 데려온 이 아이의 경이로움을 이해하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52, 그리고 예수께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예수는 어떻게 성장했나요? 그는 지혜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지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당신의 개념은 이와 같습니까? 그는 3살 때보다 12살 때 지적으로 더 예민했을까요? 성경은 그가 그랬다고 말합니다.

오, 세월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게 요점이에요. 그는 물론 죄와는 별개로 정상적인 인간적 성장을 경험했어요. 그는 유치한 짓을 했나요? 물론이죠.

유치한 짓이 죄인가요? 아니요. 물론입니다. 그는 외경 복음서에 나오는 대로 했나요? 진흙으로 비둘기를 만들어서 불어넣으면 날아갔나요? 아니면 놀이 친구를 쏘았나요? 아니요, 물론 아닙니다.

그게 예입니다. 그런 종류의 것들은 독실한 기독교인조차도 빈틈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의 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원하는 것을 주셨고, 예수께서 유아 시절에 무엇을 하셨는지, 또는 예수께서 십 대 시절에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물론, 일부 이단자들도 거짓 복음을 썼지만,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 썼고, 터무니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무엇을 생각해 낼지 보여줍니다.

그들 중 일부는 영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아니, 그들은 영감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30세에 지혜가 자라셨고, 오랜 세월 아버지께 헌신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신인으로서 그는 12살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적으로 준비되었지만, 확실히 12살 때 그는 총명한 꼬마였습니다.

그는 후광이 없었다. 오, 그는 신이었지만 후광이 없었다. 이해한다.

중세 예술은 그가 문자 그대로 후광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기렸습다. 그것은 그가 인간의 육체를 가진 신이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서가 성육신한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격에 해당합니다. 땅에 계신 아들 에 대해 말하고 , 그가 죄를 용서했다거나,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다거나, 그들이 그를 체포하러 왔을 때, 요한복음 18장에서, "내가 그다"라고 말했을 때, 그를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이것은 성육신한 아들에 대해 특별히 그의 신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격에 대해 말합니다.

다른 말로, 나는 목마르다. 그는 지쳤다. 그는 배고프다.

그는 잠들었다. 그는 약했다. 그리고 사이먼은 그를 위해 그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

당신도 약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을 준비하기 위해 채찍질을 당하고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말은 어떤 사람, 예수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는 성육신 없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물론, 한 인격 안에 신이자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 말하는데, 특히 그의 인간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의 죽음도 그와 같습니다.

아하! 하느님은 죽을 수 없다고 했나요? 물론, 하늘에 계신 하느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자녀들은 살과 피를 공유하기 때문에, 사실 문자 그대로, 피와 살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할 수 없습니다. 그 자신도 같은 것에 참여하여 죽음을 통해 마귀를 멸하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늘의 신은 죽기 위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신은 죽을 수 없지만 신비롭게도 죽은 사람은 신이었습니다. 전에도 말했었습니다.

아마 다시 말할 겁니다. 십자가는 신비로운데, 성육신의 신비가 십자가에 빌려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수가 어떻게 한 인격으로 신이자 인간이신지 말씀하시면, 저는 죽을 수 없는 신이 우리 주님의 인성과 연합하여 죽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좋다. 그 사람은 죽었다. 그게 요점이다.

우리는 사람이나 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네스토리우스파입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로 성육신한 이후로 한 사람입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자랐다. 메리가 목수 작업장 문에서, 조셉의 목수 작업장에서, 내 아내가 생일마다 주방 문에서 한 일을, 오, 어린애가 얼마나. 세상에, 그 어린애가 지금 32살이야.

나는 늙어가고 있어. 그는 너무 신이 났어. 왜냐하면 그의 일곱 번째 생일에 그는 다른 세 형제보다 키가 컸기 때문이야. 만약 메리가 그렇게 했다면, 목수 작업장 문의 자국이 올라갔을 거야.

피터슨, 뭐라고 말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났다는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었고, 신인으로서 육체적으로 자랐거든요. 지혜뿐만 아니라 키도 자랐어요. 제 학생들에게 진짜 걸림돌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랐다는 말이에요.

오, 타임아웃. 신의 아들은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인으로서, 12살 때 그는 성전의 의사들과 성전의 성직자들을 놀라게 했지만, 분명 그의 기도는 21살 때 12살 때보다 더 열렬했고, 분명 그는 자신이 더 많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루 된 아주 새로운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성숙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성숙은 구원하는 믿음, 성령,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의 기능이며, 예수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안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30세에 공적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것은 규정된 나이였고, 그는 영적으로 성장했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일 때, 그는 신성한 권능을 사용했지만, 광야의 유혹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읽지 않고, 예수는 돌아서서, "사탄아, 꺼져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읽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읽습니다. 성경에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신명기를 세 번 인용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모범이신가요? 예와 아니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지 묻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쁩니다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측면에 관해서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걸으신 대로 걸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 그는 우리의 모범입니다. 저는 신약에서 그가 죽음으로만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곳을 열 군데 꼽았지만, 그건 다른 시간에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예수께서는 12살 때 부모와 함께 아들을 키우셨고, 미래를 바라보셨습니다 . 루크 박사는 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지혜로 자랐습니다.

그는 키가 자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고,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입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제 아내가 우리 어린 아들이 하게 한 일을 하게 했다면, 어린 아들들은 지금 다 자랐고, 어린 시절에 아이를 낳고, 마리아가 그들을 하게 했다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손으로 음식을 먹게 했다면, 그는 온통 온통 물건으로 뒤덮였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야: 그는 사회적 기술이 성장했어, 알았지?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이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우리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이야. 컬트의 저주받은 오류는, 신이 그 시스템에 갇힌 불쌍한 사람들을 축복하길, 그들이 예수가 신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므로 그들은 단순한 사람이나 천사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그들의 죄를 없애줄 것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천사와 단순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성이 본질적인 것처럼 그의 인성도 본질적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대신 죽기 위해 땅에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우리와 같은 종족, 즉 인류였습니다. 그는 두 번째 아담이셨고, 모든 면에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죄는 인류의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입니다. 그리고 오직 아담과 이브와 예수만이 그런 방식으로 옳게 만들어졌고, 오직 예수만이 그런 방식으로 옳게 남았습니다.

신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진정한 인간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구절입니다. 그의 진정한 인간성은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그의 성장을 통해 드러냅니다.

예수는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그의 십자가형과 죽음은 그가 겪은 인간적 경험을 보여줍니다. 신이 죽었을까요? 글썄요, 죽은 사람은 신이었습니다.

죽음이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면,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손에 제 영혼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과 육신은 분리되었습니다. 아,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요한복음 19:18.

거기서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와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한 사람은 양쪽에, 예수는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는 머리를 숙이고 그의 영혼을 내어주셨습니다. 33. 군인들이... 오, 그것은 준비일이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에 대해, 그리고 안식일을 어기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 세상에. 우리의 안식년 I에 점을 찍고 안식년 T에 십자를 그어보자. 오.

오, 세상에. 하지만 해가 진 뒤에 십자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씌울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두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왔을 때, 요한복음 19:33,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들은 그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성경을 성취했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없습니다.

아, 여기서 좀 보자. 나는 시편을 성취하고 싶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완전히 무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진정한 인간성은 그의 인간적 경험에 의해 증명되었다. 그는 태어났다.

그는 성장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진정한 인간성은 또한 그의 아버지와의 인간적 관계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신에게 종속되었습니다.

그는 신을 공경했습니다. 그는 신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체계적인 강점은 그의 약점입니다.

그 강점은 정의하고, 구별하고, 집중한다는 점이며, 이런 종류의 세부적인 작업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일반적으로 그의 신성과 성육신과 그의 재림과 다른 것들과 함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분리할 때 우리는 편파적이거나 근시안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와 인간적인 관계를 가졌나요? 네. 아버지 와의 신성한 관계는 그가 지상에 있을 때에도 계속되었나요? 네. 신비롭지 않나요? 오, 네.

저는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미스터리를 설명하겠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미스터리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바로 그 것들이 실제로 미스터리를 강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28.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느니라. 내가 떠나가서 너희에게로 오리라.

평소처럼, 가난한 제자들은 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과 나는 더 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 입니다 .

아버지 는 나보다 더 크시다. 그 진술은 뒤집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이제, 그것이 하늘의 삼위일체에 대한 영원한 진술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지상의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에 대한 시간적 진술입니다. 신인으로서 그는 아버지가 나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상의 신인으로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으며, 당신은 그것에 대해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는 신에게 종속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26. 그의 신성은 네 번째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인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필수적입니다. 칼케돈이 옳습니다. 그는 두 가지 본성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성육신 이후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요한복음 5:25. 한 시간이 오고 지금 여기 있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듣는 자가 살아날 때. 육체적인 부활처럼 들리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28절과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활 또는 재생입니다. 아버지 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시듯이, 그는 아들도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 사람들이 이것을 아버지가 영원 속에서 아들을 얻는다는 영원한 진술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육신을 허락하는 성부의 일시적인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부는 성육신을 원하셨고, 아들이 인간 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듯이 , 그는 성육신한 아들에게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도록 허락했습니다. 성육신이 일어난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 진술은 뒤집을 수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그것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아니, 아니, 자신 안에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이 놀라운 기도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미 아버지와 함께 돌아와서 자신의 일을 완료한 것을 상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2. 예수께서 이 말씀의 1절을 말씀하셨을 때, 그는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그 시간이 왔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여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게 하소서. 당신이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으니, 당신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사람들을 주시는 것은 요한이 택함을 묘사한 세 가지 그림 중 하나입니다. 이 장에서 네 번이나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들의 사역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당신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 아들은 당신이 모든 육체에 대한 권세를 그에게 주셔서 영생을 주실 수 있게 하셨으므로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의미는 택함받은 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육체에 대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 진술은 뒤집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육체에 대한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 그 의미는 아들이 육신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고 강하게 하셨으며,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땅에서 당신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4절, 당신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수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는 땅에서 당신을 영광스럽게 했고, 일을 마쳤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경건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저 요점을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구절은 종속성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저는 신약에서 성육신에서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의 인간성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그의 신성만큼이나 우리의 구원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적 또는 기능적 종속이지 본질적인 종속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아들입니다. 게다가 아들은 상호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아버지를 존중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아들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감각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는 네 번째 복음서에서 그 언어를 사용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존중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는 그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718에서, 자기의 권위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그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내신 아들의 영광을 구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써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저는 17절을 좋아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 그는 가르침, 나의 가르침, 예수께서 주시는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말하는 것인지, 내가 스스로의 권위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입니다. 그것은 주장하기에 놀라운 약속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 솔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요한복음을 읽을 의향이 있는 구원받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주님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보여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얼마나 훌륭하고, 초대하는 구세주입니까.

예수께서는 큰 물보라를 일으키지 않고 일찍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기 위해 초막절에 중간에 올라가셨습니다. 승리의 입성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랍비와 함께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 유대인 선생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은 공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학식이 있습니까? 사실상 16절은 아버지가 나의 랍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그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약속을 주장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이제,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하지 마십시오.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하십시오.

어리석은, 구원받지 못한 어떤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꺼이 바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아 계시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주님과 구세주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권위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의미는, 내가 하는 일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그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그러하듯이 자신에 대해 3인칭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합니다. 나는 순종하는 아들로써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비록 아버지가 아들을 공경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것은 신인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공경하는 방식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다는 것을 거듭거듭 읽습니다. 요한복음 10:18에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다시 취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요한복음 2장,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그것을 세울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나는 내 목숨을 내려놓고, 다시 취하리라.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은 네 번째 복음서에서 자신을 일으키십니다. 즉, 요한은 하나님의 구약의 일반적인 일을 아들에게 돌리는 신약의 경향을 악화시킵니다. 우리는 이미 골로새서, 빌립보서, 히브리서가 어떻게 아들에게 창조, 섭리, 구원, 완성을 돌리는지 보았습니다.

요한은 더 나아갑니다. 제가 요한복음 1:12와 13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아들은 사람들을 입양합니다. 그것은 항상 아버지의 일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당신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택하여 열매를 맺도록 정했고, 당신의 열매는 나를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가 당신을 택했기 때문에 나에게 속합니다. 아들은 선거의 저자이며, 그것은 오직 성경 전체에 있습니다.

아버지 입니다 .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일으킬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의 성전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성경과 동등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내 목숨을 내려놓고, 다시 취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버지와 별개로 그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 습니다 .

아무도 내 삶을 내게서 빼앗아가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는다. 18.

나는 그것을 내려놓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다시 잡을 권한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내가 아버지 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

아들은 신의 명령을 따른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을 멈출 것이다 . 아마도 이것이 마지막일 것이다.

나는 그것을 보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되돌릴 수 없다. 아버지는 순종하지 않는다.

왜 그러세요? 저는 예수님의 인간성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아버지와 맺은 인간적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 네, 그는 또한 신성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그는 아버지의 품에 있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속에.

그래도, 그가 지상에 있을 때는, 하지만 그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 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나는 내 권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렇다고 말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아버지의 뜻과 반대됩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요한복음 14:31.

악마가 온다. 나는 죽을 거야, 예수가 말한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온다.

그는 나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다. 타락 이후 모든 인간에게 그랬던 것처럼 . 그들의 내적인 죄악적 욕망으로.

그리고 자연, 당신이 그것을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그는 나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어나, 여기서 떠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10. 가지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

그리고 나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원하고 전능한 신격의 두 번째 인격입니다.

나사렛 예수 안에서 육신과 피를 가진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방식들 중에서도 보여집니다.

아버지 와 인간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에서 . 다음 강의에서,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까다로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예수께서 완전하게 되신 것에 대해서요.

이것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7, 체계학, 그리스도의 인간성 증명입니다.